

# 러일 교섭 전 가와지 도시아키라의 대외 정책에 대한 재검토

와다 마사키 (히로시마대학)

## 1. 들어가며

본 보고에서는 페리 내항과 같은 연도인 가에이(嘉永) 6년(1853년)과 그 다음 해, 러시아 사절 응접역으로서 러시아 사절단 푸타틴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개명파'나 '한정교역론'자로 평가되어 온<sup>1)</sup> 가와지 도시아키라(川路聖謨)에 초점을 맞추어 그가 펼쳤던 대외 정책의 위상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가와지 도시아키라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의 '패자'로 여겨졌던 도쿠가와 정권의 관리였지만 어둠 속으로 문힐 뻔한 이즈시번(出石藩) 집안 소동을 밝혀내면서 도쿠가와 정권의 관리로서는 예외적으로 '능력(能吏, 유능한 관리)'로 평가받았다. 전후에는 그 평가가 대외적으로도 퍼져 가와지는 러시아에 대한 '한정교역'론을 주창하고 '개명'적인 외교적 수완을 발휘한 러일 교섭의 일등 공신([와다(和田)1991]등)이자, 서양 사정을 설파한 세계 지리서인 『해국도지(海國圖志)』의 출판에 힘쓴 '개명 관료'로[미나모토(源)1995]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가와지의 능력 이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가 나타났다. 가와지와 함께 러시아 사절 응접역으로 임명되어 러일 교섭에서 러시아 국서의 한문 번역을 맡은 고가 긴이치로(古賀謹一郎)에 대한 연구에서는 가와지의 '부라카시(애매하게 문제의 처리를 미루는 태도)' 즉 회답 연기책에 의한 외교를 고가 본인의 일기에서 비판한 것을 근거로, 가와지가 '개명파' 능력이라는 평가를 부정한 것이다([오노데라(小野寺)2006], [마카베(眞壁)2007]).

이들 선행 연구가 밝혀 온 것은 ①가와지의 '능력' 이미지가 러일 교섭의 일등 공신이라는 사실이 대외적으로도 퍼지면서 굳어지게 된 점, 또 ②가와지와 함께 러시아 사절 응접역에 임명된 고가 긴이치로 연구의 진전으로 가와지 도시아키라의 '개명파' 능력이라는 평가가 상대화된 점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선행 연구의 문제점은 ②의 평가가 ①의 평가를 뒤집은 것에 불과하며 '능력'이거나 반 '능력'라는, 혹은 '개명'이거나 반 '개명'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병존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가와지가 러일 교섭으로 막부 말기 외교의 최전선에 서서 교섭의 토대가 되는 자타 인식을 스스로 형성하는 사상가[나라(奈良)2018]였던 이상, 가와지 도시아키라의 자타 인식과 그로부터 형성되는 대외 정책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에서는 가와지 도시아키라 본인이 남긴 사료와 다른 사람이 가와지에 대해 적어 둔 사료를 함께 사용하면서 가와지 도시아키라의 대외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는 가와지가 남긴 사료, 특히 『가와지 도시아키라 유서』를 중심으로 가와지를 분석해 온 정치 사상사 연구([사토(佐藤)1965], [다케무라(竹村)2008])와는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 2. 타인이 본 가와지의 정치 자세

상기 정치 사상사 연구의 과제를 뛰어 넘어서 가와지 대외 정책의 총체적인 위치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가와지 '본인'의 시점만이 아니라, 가와지 이외의 '타인'의 시선도 함께 고찰

1) 주로 [와다(和田)1991], [미타니(三谷)2003] 등 많은 개국사 연구에서 이러한 평가가 정착되어 있다.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sup>2)</sup>. 따라서 여기서는 가와지의 기본 자세에 대한 타인의 시선을, 적극 개국론자로 알려져 있는 도다 우지요시(戸田氏榮)와 고가 긴이치로(古賀謹一郎)의 시점에서 밝히고 싶다.

먼저 가와지 도시아키라가 후손을 위해 자신의 직무를 다하는 마음가짐과 충의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는 『가와지 도시아키라 유서』를 중심으로 가와지의 기본 자세를 확인해 보자. 원래 가와지는 도쿠가와 정권의 요직인 간조긴미야쿠(勘定吟味役)로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틈틈이 학문과 무예에 힘쓰고 있었다<sup>3)</sup>. 그는 양명학(陽明學)이나 송학(宋學)에 관한 책을 읽었으나 실제로는 학문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읽은 것이 아니었으며 본질적으로는 서적 등을 가리키는 '문(文)'보다는 '무(武)'의 측면을 중시했다. '문'은 어디까지나 '무사를 잘 하기 위한 도구<sup>4)</sup>', 즉 무예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무국'인 일본을 통치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자에게는 무를 향상시키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없으며, 일본이 멸망하게 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부국강병의 실현이 필요했다<sup>5)</sup>. 그런 상황에서 가와지는 서양의 군학에 관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는 『해국도지』의 출간에도 힘썼다. 부국강병의 실현을 위해 가와지는 '무사'를 말함에 있어서 유용한 '학문'을 한다는 기본 자세를 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가와지의 이러한 기본 자세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가와지와 함께 러시아 사절 응접역에 임명되어 러시아 국서의 한문 번역을 담당했던 고가 긴이치로는 '개명 관료'인 가와지의 『해국도지』 독해에 대해 비판했다. 가와지는 서양 사정이 기록된 청(중국)의 세계지리서인 『해국도지』에서 네덜란드제 군함의 값이 '2만금' 이하임을 읽고 그것이 페리 내항 10여년 전 나가사키 봉행의 다구치 요시유키가 네덜란드 상관장에게 군함을 주문한 액수와 거의 같은 액수라고 고가에게 설명했다. 한편, 고가는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금의 가치가 달라 둘은 비교할 수 없다고 한 다음, 사가번의 나베시마 나오마사가 주문한 군함의 비용은 5,000금 미만이기 때문에, '2만금'이라는 가격으로는 외국(특히 네덜란드)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착취당해 자국의 예산이 소진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지적했다. 여기서 국가 간 환율을 모르고 글자만 본 가와지의 표면적인 『해국도지』 독해를 고가가 비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6)</sup>. 또한 가와지가 나라 봉행 재임 시절 알게 된 나라의 대불에 관한 일반 상식을 고가에게 이야기했을 때에도 고가는 가와지가 이야기하는 것의 7~80%가 잘못되었으며 가와지가 속임수가 심하다는 평가도 일기에 기술했다<sup>7)</sup>. 이처럼 가와지는 원래 서양 군학을 적극 수용하고 『해국도지』 출간에도 힘쓰는 '개명 관료'로 자리매김해 왔지만, 고가 긴이치로의 입장에서 가와지의 '개명'적 카리스마는 이름뿐인,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또 학문 긴미(吟味) 시험을 통과한 외교 엘리트로, 우라가 봉행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던 도다 우지히데는, 이국선 내항과 관련한 해방 대책으로 가와지가 제안한 에도만 내의 「매

2) 나라 가쓰시(奈良勝司氏)는 세계관 및 인식의 틀을 '다른 논리에서 발생하는 타자를 매개로 비로소 처음으로 가시화되는 것'이라고 정의했으며([나라2010], 3페이지), 본 보고도 그 정의를 바탕으로 가와지의 세계관에서 형성되는 대외 정책의 문제를 고찰한다.

3) 「유학잡지(遊學雜志)」(야마사키 마사타다 저, 『요코이 쇼난 유고』, <일신서원, 1943년>, 804페이지), 덴보 10년(1839년) 8월 19일.

4) 「영부기사(寧府紀事)」(『가와지 도시아키라 문서 2』, 417페이지), 고카 3년(1846년) 11월 27일.

5) 「가와지 도시아키라 유서」(『가와지 도시아키라 문서8』), 안세이 5년(1858년)~게이오 4년(1868년).

6) 「서사속기(西使續記)」(『막부 말기 외국 관계 문서 부록 1』, 348페이지), 가에이 7년(1854년) 11월 25일.

7) 위의 책8사료, 358페이지, 가에이 7년 12월 4일.

물해」를 비판하며 가와지를 해방에 그다지 정통하지 않은 인물로서 평가하고 있었다<sup>8)</sup>. 이국선 내항의 대책으로 대선 제조와 포술 정비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매해(埋海)'라는 비현실적인 대책에 의지하여 외국과 응접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페리 내항 이전부터 무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며 서양 군비의 도입을 주장한<sup>9)</sup> 가와지지만, 도다의 눈에는 포술을 배우지 않고 포탄에 겁을 먹은 가와지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가와지 안에서 전쟁에 질 수 없는 가치를 나타내는 '무위'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포탄을 두려워하여 '매해'라는 피전 정책을 썼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본 도다가 가와지의 비현실적인 해방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이보다 고가나 토다를 비롯한 적극 개국론자에게는, 가와지의 「개명」적 카리스마가 통용되지 않았음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3. 쓰쓰이 마사노리의 비교로 본 가와지 대외 정책의 특징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가와지의 '개명파'라는 평가가 명분일 뿐이며,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개명파'의 근거로 자주 이용되어 온 한정교역론의 주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설에서는 러일 교섭에서 러시아 사절 응접역을 맡은 가와지 도시아키라와 쓰쓰이 마사노리가 함께 러시아에 대한 한정적인 교역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가와지와 쓰쓰이는 성격이 전혀 다른 인물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단순히 말하면, 가와지는 간조계의 필산 긴미에 합격한 재정면의 전문가였던 것에 반해, 쓰쓰이는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학문 긴미 시험에 합격한 주자학의 전문가였다[마카베 2007]. 이 두 사람의 상반된 성격을 감안할 때 가와지와 쓰쓰이의 대외 정책은 함께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정교역론자라는 가와지와 쓰쓰이의 통설적 이미지를 무너뜨린 다음, 가와지 도시아키라의 대외 정책의 특성을, 쓰쓰이 마사노리의 그것과 비교하는 형태로 밝히려고 한다.

우선 미국 사절의 페리 내항 시기 가와지와 쓰쓰이의 대외 정책에 대해 확인하겠다. 두 사람이 전 미토번주 도쿠가와 나리아키를 방문했을 때, 이국선 내항 대책으로 미국에 대한 교역을 제기하였으나 나리아키가 반대했고, 그 다음 방안으로 서양에 대해 5~10년의 기간으로 회답을 연장하는 '부라카시' 정책을 제안하여 나리아키의 동의를 얻었다<sup>10)</sup>. 이 '부라카시' 정책이 가와지와 쓰쓰이 두 사람의 대외 정책으로 여겨져 왔지만, 쓰쓰이는 '부라카시' 정책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웃국가인 미국과 러시아에 한정해 교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답 연기책(부라카시 정책)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sup>11)</sup>. 쇼군 도쿠가와 이에요시(徳川家慶)의 사망이라는 국사다난한 시기를 감안하여 1년 정도는 연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없이', 즉 언제까지나 거절한 상태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쓰쓰이는 서양에 대해 5~10년의 기간으로 회답을 연기하는 '부라카시' 정책에는 찬성하지 않았고 미국이나 러시아에 대해 한정적으로 교역을 실시하는 것이 주안이었으며 실질적으로 '부라카시' 정책을 주장한 것은 가와지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페리 내항 시기 가와지는 '부라카시' 정책을 대외 정책으로 주장했음을 쓰쓰이 마사노리의 대외 정책과의 대비에서 엿볼 수 있었지만, 페리 내항 1개월 후 러시아 사절인

8) 이도 히로미치(井戸弘道)에게 보낸 도다 우지요시의 편지(『남포서신(南浦書信)』 70, 76, 80페이지), 가에이 6년(1853년) 7월 2일, 9일, 12일.

9) 「영부기사(寧府紀事)」(앞의 책 4사료, 389페이지), 고카3년(1846년) 11월 27일.

10) 도쿠가와 나리아키(徳川齊昭) 수기(『미토번 사료 상편』, 19~21페이지), 가에이 6년 6월 14일.

11) 아베 마사히로(阿部正弘)에게 보내는 쓰쓰이 마사노리 의견서(「대일본 유신 사료 고본」 KA045-0306~0317<도쿄 대학 사료 편찬소 HP의 '유신 사료 강요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 가에이 6년 8월.

푸타틴이 나가사키에 내항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해 한정적으로 교역한다는 대러 한정교역론이 도쿠가와 정권의 유지 속에서 활발히 주장되었다[미타니2003]. 실제로 가와지를 포함한 가이보가카리(海防掛)의 간조 봉행이 서명한 상신서<sup>12)</sup> 및 러시아 사절 응접역 임명 후에 쓰쓰이와 함께 서명한 협의서<sup>13)</sup>에서 이러한 주장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대러 한정 교역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회답 연기의 수단으로 구상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 이외의 서양 각국이 일본에 통상을 요구해 왔을 때, 러시아 측이 ‘괘합’, 즉 중개역으로서 서양 각국에 「합의」를 끼움으로써, 일본 측으로서는 서양 제국에 대한 대응을 2~3년간 연장하고, ‘합의’가 잘 되면 교역을 하자라는 것이다. 여기서 가와지의 대외 정책은 한정교역론을 전면에 앞세워 주장했다기보다 오히려 외국에 대해 회답 연기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주장하고 있어, 회답 연기를 비판하는 쓰쓰이와는 성격을 달리한 대외 정책임을 알 수 있다.

#### 4. 마치며

이상 러일 교섭 전 가와지 도시아키라의 대외 정책을 가와지 이외의 타인의 시각도 섞어가면서 재검토하였다. 가와지는 일관되게 ‘무’를 중시하고, 부국강병을 위해 유용한 서양군학 등의 학문에 힘쓴다는 자세를 기본 이념으로 주장했으나, 적극 개국론자인 도다 우지히데나 고가 긴이치로에게는 포술을 배우지 않았으며, 서양 군학에 대해 기술된 『해국도지』의 독해에 관해서도 글자 면에만 주목한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받았다. 또 가와지는 쓰쓰이와 함께 한정교역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오히려 실제로는 2~3년이나 5~10년의 기간을 두고 회답을 지연시키는 ‘부라카시’ 방책에 있었고 어디까지나 한정교역론을 회답 연기의 한 수단으로 주장했다는 점에서 한정교역론에 축을 두고 회답 연기의 ‘부라카시’ 방책을 비판하는 쓰쓰이의 주장과는 상이했음을 밝혔다.

(번역책임자:최유진)

---

12) 아베 마사히로(阿部正宛)에게 보내는 가이보가카리 간조 봉행(이시코 마사히라, 마쓰다이라 지카나오, 가와지 도시아키라) 및 간조긴미야쿠(다케노우치 야스노리, 마쓰이 스케자에몬 등)의 상신서(『막부 말기 외국 관계 문서 2』, 16페이지), 가에이 6년 8월.  
 13) 아베 마사히로에게 보내는 가와지 도시아키라, 쓰쓰이 마사노리 협의서(『미토번 사료 상편』, 171페이지), 가에이 6년 10월.